

韓國의 近代思想

새책 안내

이 책은 근대사의 전반기에 해당하는 약60년간을 다룬 것으로 민족투쟁과 내적외적 연관되는 사상들을 중요한 역사적사건들과의 유기적 연관 속에서 체계적으로 서술해 놓았다. 1960년대에서 3·1운동에 이르는 각양각색의 사상들이 일관된 맥락으로 엮여 있으며 이 사상들을 기초로 한 민족주의 사상의 형성 및 발전, 민족운동사에서 이사상이 담당했던 역사적 역할을 밝혀져 있다.

상황인식과 이상파피

『대학주부』는 창간 30주년을 맞아 특집 시리즈 『오늘의 한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연재되었던 기획물을 엮어 『상황인식과 이상파피』라는 책을 펴냈다.

문화운동론

60년대 후반이래 서서히 진전되어온 문화운동 전반의 모습을 정리하면서 80년대 상황속에서의 문화운동의 방향을 모색한 일련의 글들과 80년대 중반을 맞이한 현재의 문화운동 각부분의 모습을 조망한 글을 모아 엮은 문화운동론이 출간되었다.

문화문화

민중음악향유원-노래

한소리, 노래일, 한가람등서 울에란 14개의 大學 노래 모임이 존재하게 되었다. 大學內의 진보적인 民主化 運動과 맥락을 같이하여 새로이 파생되는 제반상황에 신속하게 대응코자 하는 이들은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내포하고는 있지만 民衆을 지향, 일반인과의 사이에서 잊어지는 이중구조를 극복, 새로운 文化創造을 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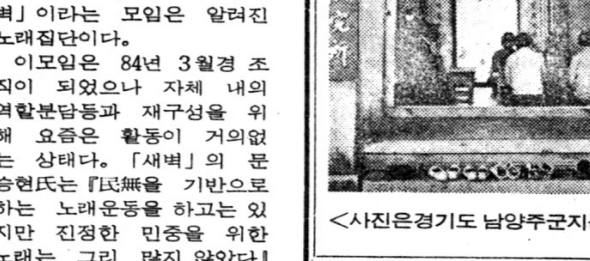
노래극·놀이 등 타 문화운동 장르와의 연합으로 노래운동 범주를 넓혀야한다.

최신기술운영으로 한계상황극복

현대감각과 전통감각의 접맥지향

현인 연극들 文化運動의 모든 방면은 可觀, 非可觀로 현정권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 퇴색되고 있다. 문화운동의 한부분인 『노래운동』 역시 자체내의 문제점과 압력 사이에서 본래의 구실을 다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말 우담情趣



<사진은경기도 남양주군지동리「芝谷書堂」>

연재소설 <2>

글 장 의 덕 <문과대 국문과>

이제 푸른 수련을 완전히 이룬듯 한 분홍이 그 쪽을 더욱 넓히며 질풍은 색조로 변해간다. 라는 듯한 붉은 빛이다. 더 이상 어릴 수도 없이 팔팔 솟아지는 삼척 부위의 핏빛. 그러나 한 순간 터질듯한 그 핏빛 기운이 힘을 뺏쳐 단번에 푸른 바다를 색 갈라서 양면으로 밀어 버린다.

그림 안 진 배 <공과대 건축공학과>

근에서 얼어진 피곤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모두 텅 비어 버린 듯, 내 걸음이 불안스레 흔들린다. 그러나 그에 아랑곳없이 그 이상스런 향기의 여운은 여전히 코 끝에 남아 내의 호흡을 붙들고 있다. 안개 낀 새벽의 숲길에서 듣는 휘파람 소리의 상큼함으로만 기억되는 그 향기.

아마추어리즘이론이란 창작비판현상

나 라다오를 여러 강압적인(?) 전파매체를 통한 대중가요의 속성을 분석, 그 활성화 방안으로 노래책의 발간, 카세트 테이프나 디스크(노래를 찾는 사람들) 등의 사용등으로 매체 확대에 힘쓰고 있다. 문승현씨는 『직접민중의 한계극복을 위한 가장 가능성이 있는 매체는 카세트 테이프이다』라고 말하고 『현실산업사회의 기술운용을 최대한도로 사용, 노래운동의 유희구조를 넓히는게 노래운동이 사는 길이다』라고 말한다.

교수님 들으세요

이 책은 일종의 서막이었다. 내 피곤기의 전조였고, 숙취의 예고였으며, 그 사내의 출현의 징조였던 것이다. 그리고 또한 나는 기억하고 있다. 책상 위에 다리를 얹은 채 최면이나 빠진 듯이 보낸 그 긴 시간의 눈에서 나뉠 건져 올린 것. 바로 그 이상스런 향기였다는 것을. 코 끝에 삼앗이 감겨 왔던 그 풍류를 알 수 없는 향기.

꿈의 幻想曲

꿈의 幻想曲 <2>

이제 푸른 수련을 완전히 이룬듯 한 분홍이 그 쪽을 더욱 넓히며 질풍은 색조로 변해간다. 라는 듯한 붉은 빛이다. 더 이상 어릴 수도 없이 팔팔 솟아지는 삼척 부위의 핏빛. 그러나 한 순간 터질듯한 그 핏빛 기운이 힘을 뺏쳐 단번에 푸른 바다를 색 갈라서 양면으로 밀어 버린다.

교수님 들으세요

이 책은 일종의 서막이었다. 내 피곤기의 전조였고, 숙취의 예고였으며, 그 사내의 출현의 징조였던 것이다. 그리고 또한 나는 기억하고 있다. 책상 위에 다리를 얹은 채 최면이나 빠진 듯이 보낸 그 긴 시간의 눈에서 나뉠 건져 올린 것. 바로 그 이상스런 향기였다는 것을. 코 끝에 삼앗이 감겨 왔던 그 풍류를 알 수 없는 향기.

교수님 들으세요

이 책은 일종의 서막이었다. 내 피곤기의 전조였고, 숙취의 예고였으며, 그 사내의 출현의 징조였던 것이다. 그리고 또한 나는 기억하고 있다. 책상 위에 다리를 얹은 채 최면이나 빠진 듯이 보낸 그 긴 시간의 눈에서 나뉠 건져 올린 것. 바로 그 이상스런 향기였다는 것을. 코 끝에 삼앗이 감겨 왔던 그 풍류를 알 수 없는 향기.

교수님 들으세요

이 책은 일종의 서막이었다. 내 피곤기의 전조였고, 숙취의 예고였으며, 그 사내의 출현의 징조였던 것이다. 그리고 또한 나는 기억하고 있다. 책상 위에 다리를 얹은 채 최면이나 빠진 듯이 보낸 그 긴 시간의 눈에서 나뉠 건져 올린 것. 바로 그 이상스런 향기였다는 것을. 코 끝에 삼앗이 감겨 왔던 그 풍류를 알 수 없는 향기.

文化短信

李仲燮 未公開 作品展 嘉興美術館서 내달 9일까지 『李仲燮 未公開 作品展』이 지난 10일부터 내달 9일까지 『東嶽美術館』서 열리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작품들은 모두 48점이며 유화가 17점, 크레용화 2점, 스케치화 21점, 삽화 8점이다.

극단 까망「용정강」공연 이대왕 민예소극장서 극단 「까망」에서는 창작극 「용정강」을 내달 2일부터 9일까지 이대왕 민예소극장에서 공연한다. 공연시간은 4시간30분과 7시간30분이다.

후기인상파 현대관화전 서울미술관서 내달 9일까지 서울미술관은 「현대관화전」을 내달 9일까지 열려고 있다. 「현대관화전」의 출품작가들은 후기인상파의 대표작가인 보나르를 비롯, 자코메티, 베이컨 등 20여명.

교수님 들으세요

이 책은 일종의 서막이었다. 내 피곤기의 전조였고, 숙취의 예고였으며, 그 사내의 출현의 징조였던 것이다. 그리고 또한 나는 기억하고 있다. 책상 위에 다리를 얹은 채 최면이나 빠진 듯이 보낸 그 긴 시간의 눈에서 나뉠 건져 올린 것. 바로 그 이상스런 향기였다는 것을. 코 끝에 삼앗이 감겨 왔던 그 풍류를 알 수 없는 향기.

이 책은 일종의 서막이었다. 내 피곤기의 전조였고, 숙취의 예고였으며, 그 사내의 출현의 징조였던 것이다. 그리고 또한 나는 기억하고 있다. 책상 위에 다리를 얹은 채 최면이나 빠진 듯이 보낸 그 긴 시간의 눈에서 나뉠 건져 올린 것. 바로 그 이상스런 향기였다는 것을. 코 끝에 삼앗이 감겨 왔던 그 풍류를 알 수 없는 향기.

이 책은 일종의 서막이었다. 내 피곤기의 전조였고, 숙취의 예고였으며, 그 사내의 출현의 징조였던 것이다. 그리고 또한 나는 기억하고 있다. 책상 위에 다리를 얹은 채 최면이나 빠진 듯이 보낸 그 긴 시간의 눈에서 나뉠 건져 올린 것. 바로 그 이상스런 향기였다는 것을. 코 끝에 삼앗이 감겨 왔던 그 풍류를 알 수 없는 향기.

OB가 「만남」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OB맥주 마케팅부 (Tel: 752-2626)